

이용섭 시장 '군 공항 면담' 제안...김산 무안군수 '거절'

“만나는 것 자체가 협의로 비춰져...지역언론 일방적 광주시 입장만 대변”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 군(軍)공항 이전'과 관련, 김산 전남 무안군수에게 제안한 면담이 사실상 무산됐다.

김산 무안군수는 19일(뉴스)과의 통화에서 "이용섭 시장을 만날 의사가 전혀 없다"며 "만나는 것 자체가 군공항 이전문제를 협의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광주시가 제안한 면담을 거절했다.

그는 "광주시는 벌써 무안군에 사람들을 보내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직간접적으로 전남도지사에게 압력을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장이 광주시민을 위하고 광주발전을 위해 일하듯, 무안군수인 저도 저를 뽑아준 무안군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무안군에 해가 되는 행동은 하기 싫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군공항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서남권 관광의 중심지로, 무안 100년 미래를 위해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며 "무조건적 반대"가

아닌, 명확한 조사를 통한 미래지향적 입장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지역언론보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김 군수는 "무안군의원과 대책위가 18일 광주시를 찾아간 것은 항의서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눌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그런데도 마치 우리가 광주시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일방통행식 표현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억울하다"며 "광주지역 언론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광주시의 입장만을 대변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앞서 무안군의원과 군공항이전 반대 대책위는 18일 광주시를 방문,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후 이용섭 광주시장을 만나 성명서를 전달했으나, 대화를 제의하는 이 시장에 맞서 대책위는 "여기서 광주시장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 협의라는 과정을 거쳤다는

오해 보드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성명서만 전달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무안 대책위의 대화 거부로 면담이 무산된 후 광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면담을 공식 제안했다.

광주시는 "서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을 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광주와 전남의 상생과 동반 발전을 위해 이용섭 시장과 김산 무안군수, 군공항이전반대대책위에 대화를 위한 면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시간과 장소는 무안군측의 제안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광주전남의 상생 발전을 위해 광주 민간공항을 조건 없이 무안 공항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군 공항의 전남 이전에 적극 협력키로 했고 국방부는 전남 무안, 해남, 신안, 영암 등 4개 지역을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

광주시, 폭설·한파
자연재난 총력 대응
내년 3월까지

광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내년 3월15일까지 폭설·한파 등 자연재난 집중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상황실과 단계별 비상근무조를 운영한다.

24시간 선제적 상황관리와 신속한 조동대응을 하며 시민 행동요령 홍보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겨울철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이날 서구 상무 시민공원 인근에서 '폭설대응 교통소통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광주시 주관으로 서부경찰서, 서부소방서, 5개 구청, 종합건설본부, 자율방재단 등 10개 기관 7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훈련은 시간당 10cm의 집중 폭설로 승용차 추돌 사고가 일어나 부상자와 차량이 고립된 상황을 가정했다.

긴급출동, 상황 보고, 교통 통제, 구급차 환자 수송, 고립 차량 구조, 제설 작업, 사고차량 견인 등 각 기관별 역할을 확인하고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지난 1일에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합동간담회를 열고 폭설에 대한 신속한 조동대응 체계 구축과 제설 인력·장비·자재 확보를 위한 사전 점검을 진행했다.

김성학 시 재난대응과장은 "합동훈련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재난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조체계를 확립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겨울철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신속한 제설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동구,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본격 운영

광주 동구가 '세계 어린이날'을 맞아 최근 관내 아동·청소년으로 구성된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를 위촉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는 관내 초·중학교에서 추천받은 35명의 아동·청소년들로 구성됐다. 위촉된 위원들은 2년의 임기(1회 연임 가능) 동안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스스로 살고 싶은 마을을 설계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으로 위촉된 아동·청소년들은 열린 토론과 정을 거쳐 10여개 정책을 제안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구, 2020년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실시

광주 서구는 오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해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1만5천여호를 대상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주택특성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택특성조사는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의 변동사항을 사전 확인 후 주택이용상황과 도로접근, 구조 등 주택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특성 항목을 집중 조사 할 예정이다.

또, 서구는 주민들에게 주택공시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가격 공시제도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주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민원실과 동주민센터에 배부한다.

남구,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어린이집 32곳 점검

광주 남구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 발생 등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남구는 19일 "겨울철 사고 예방과 영유아들의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달 11일까지 동절기 어린이집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현장 점검이 실시되는 관내 어린이집은 21곳이다.

2017년 및 2018년 동절기 안전점검이 진행된 어린이집과 올해 하반기에 급식·위생 점검이 이뤄진 어린이집은 이번 현장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북구, 2020년 예산 7103억원 편성

광주 북구가 2020년 예산안을 편성해 20일 북구의회에 제출한다. 북구는 "민선 7기 주요 공약사항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 6647억원 대비 456억원(6.86%) 증가한 7103억원 규모의 2020년 본예산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출된 2020년 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 6647억원 대비 456억원(6.86%)이 증액되면서 2018년 5787억원, 2019년 629억원, 2020년에는 729억원을 넘어사게 됐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7032억원, 특별회계는 71억원 규모이고 재정자립도는 13.91%(2019년 13.77%), 재정지주도는 26.86%(2019년 26.75%)로 향상됐으며 사회복지비는 68.71%(2019년도 67.75%)로 증가했다.

광산구, 주민참여예산 위원 위촉식 개최

19일 광주 광산구가 구청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공개모집과 추천으로 선정된 44명의 신규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위촉을 받은 위원들은 기존 위원 34명과 함께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특히, 이날 위촉을 받은 신규 위원에는 올해 3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수료한 마을플래너, 어린이집 대표,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종사자 등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광산구 관계자는 "위원들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등 풀뿌리 지방자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임형택 기자



광주미래 대중교통 발전방안 컨퍼런스 이용섭 광주시장이 19일 오후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지역 미래 대중교통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니희승 철도기술연구원장 등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민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세무기장·조정 ■법인설립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에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연도	고소득층	중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평균
2016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118,000원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국회 1571-0000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약속해주세요.